



(민킴, 만6세, 코피노 고아)

“여러분의 후원으로, 한아이의 삶이 변화됩니다!”



['메신저 후원 신청 하기'](#)

(사)메신저 인터내셔널

2025
News Letter





해외에 있는 한인 혼혈 아동들을 돕기 위해 설립된 사단법인 메신저인터내셔널은 2009년부터 외교부에 비영리 법인으로 등록된 이래, 15년 이상 꾸준히 필리핀에 있는 코피노 아동들과 그 가정, 돌봄과 지원 사역을 해오고 있습니다.

Messenger
International

비전

사회에서 소외와 차별 속에 살아가는, 코피노 아이들과 그 가정들에, ‘교육’과 ‘자활’을 목표로, 아이들에게는 유치원부터 대학(원)에 이르기까지 전 교육과정을 지원하고, 엄마들에게는 자활 및 자립 방안을 마련해 줌으로써 하나님의 사랑받는 한사람 한사람, 믿음의 한 가정 한 가정을 견고히 세우는 사역을 해나가고자 함

사역(필리핀 앙헬레스, 세부)

교육 (공부방, 한글학교, 성경교실, 태권도, 학용품, 장학금 지원)
 자활 (구호 및 생계 지원, 부모교육 세미나, 요리교실, 창업 지원)
 특별 (선배상담세미나, 아웃리치, 패밀리데이, 성탄행사 등 지원)

함께하는 사람들

이 사 장	김춘호 (現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총장, 前 한국뉴욕주립대 총장)
사무총장	김명기
이 사	김정순, 김변호, 박동찬, 송병석, 신상두, 이인선, 이인재, 이정준, 장대근, 홍정민, 오원현, 원태경
감 사	유봉환
후원기업	(주)선광티앤에스, (주)다음정보기술, (주)리딩아이, 법무법인 루츠, 라이텐쉐이드, (주)세인아이엔디, (주)스프레텍스
후원교회	강릉중앙교회, (분당)다함교회, 문호교회, 수표교교회, (수지)이룸교회 열림교회, 영광교회, (일산)광림교회, 주다산교회, 제천제일교회

2025 Messenger' slogan

“그림을 그리자!”

“너희는 각 지파에 세 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 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여호수아 18:4)

꿈을 향한 도전과 도약의 한 해!



“꿈 너머의 꿈을 그려가는 아이들” - 꿈을 이룬 선배를 보며 다시 꿈꾸는 동생들 -



Esther Kim Hyun Oraye.

에스더의 풀네임 가운데 ‘Kim’이라는 낯익은 한국 성이 나란히 새겨져 있습니다.

에스더 (1996~)는 2013년, 열여덟살이 되던 해에, 필리핀 앙헬레스에 있는 메신저 코피노 센터를 처음 만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갑자기 사라지고 방황하던 학창시절, 고등학생이었던 그녀에게 대학입학은 사치처럼 여겨졌습니다.

홀 어머니와 두 동생들까지, 네 식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버거운 상황이었기에...

그럼에도 에스더는 소망을 잃지 않고 자신의 삶과 미래를 놓고 기도했습니다. 길을 열어 주시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던 중, 그 응답으로 메신저와 특별한 만남을 갖게 되었고, 그때부터 대학, 대학원 졸업까지 계속해서 장학금 지원을 받으며 공부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는 회계사 자격증을 가지고 관련 회사에 취업했습니다. 꿈을 이룬 에스더. 그러나 하나님은 계속해서 더 큰, 다른 꿈을 꾸게 하셨습니다. 그때부터 변호사가 되고자 하는 꿈을 품고 로스쿨에 입학했고, 그렇게 외롭고 긴, 3년의 시간을 지나 드디어, 작년 12월!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며 기쁘고도 감격스런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올해로 29세가 된 에스더는 코피노 센터에서 가장 큰 언니이자, 자랑스런 코피노 1호 선배입니다. 그래서인지 그녀는 아직도 1년에 두 번씩 센터에서 '상담 세미나'를 열어 후배들의 학업과 진로에 도움을 주고 있고, 아웃리치에도 함께하여 빈민가 아이들에게 복음 전하는 일도 기쁘게 감당하고 있습니다. 후배들은 그런 에스더를 진정으로 존경하고 사랑하며, 그들도 곧 그 멋진 길을 따라갈 수 있기를 소망하며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후원자들의 꾸준한 지원이,
에스더 같은 한 사람의 인생을
견고하게 세워지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 한 열매를 통해 지금도
주변의 수많은 새싹들이, 인생의
혹독한 겨울을 소망의 힘으로
버텨내고 있습니다.
에스더처럼, 소망 없던 이들이
꿈꿀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로
함께해주세요!



한국방문 후 한국어와 태권도 수업에 더욱 집중하는 아이들

코피노 센터는 매주 꾸준히, 바쁘게 돌아갑니다. 아침 9시에 모여 영어 성경공부로 하루를 시작하고, 그 후 한국어 수업 레벨 1,2,3가 이어집니다. 올해부터는 특별한 한국어 선생님이 투입되었는데, 바로 코피노 ‘해린이’ 엄마 ‘조이’입니다. 전문대에서 특수 아동학을 전공하고 있는 조이(29세)는 현지에서 통역 일을 할 정도로 한국어 구사 능력이 뛰어난데, 올해 본격 레벨 3반을 맡아, 따갈로그어와 한국어를 자유자재로 구사하며 아이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작년 한국방문 후 큰 자극을 받고, 올해 남다른 열정으로 수업에 임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신설된, 청소년 성교육 프로그램(1월)

올해 처음 시행된 행사 중에 ‘청소년 성교육 프로그램’이 있는데, 2009년부터 시작한 사역이 15년이 넘어가며 2~3세 유아기때 처음 만나 함께 했던 아이들도 어느덧 청소년기가 되었습니다. 성교육 부재와 성 개념이 자유로운 필리핀의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아이들이 책임감 있는 어른으로 지혜롭게 판단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성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주제는 크리스찬으로서의 ‘사랑, 연애, 결혼’으로 전문가 강의 후, 토론과 과제, 발표순으로 진행했습니다. 처음 접해보는 프로그램에 아이들이 흥미를 갖고 적극 참여하며, 뜻깊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3월, 펠리자 크리스천 교회로 떠난 5차 아웃리치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

2023년 시작한 아웃리치가 벌써 5회째가 되었습니다. 빈민가에 세워진 교회로 봉사를 떠나 선교사역을 펼치는 아웃리치를 지난 3월 다녀왔습니다. 16명의 코피노 아이들이 스태프로 참여해 80여명의 현지 아이들과 만난 이번 행사는 말씀나눔과 워십, 태권도 시범과 만들기 활동으로 진행했습니다. 지금까지 쌓인 시간을 통해 그동안 도움을 받기만 하던 존재에서 도움을 주는 존재로 성장하며, 코피노 아이들의 자존감이 많이 높아졌습니다. 또한, 사랑스런 꼬마들의 눈을 보며, 나도 이렇게 많은 사랑을 받은 존재임을 깨닫고 감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뭉치면 강하다, 그리고 훨씬 즐겁다! ‘코피노 패밀리 데이(5월)’

코피노멤버 전체 모임인 ‘패밀리데이’를 지난 5월, 앙헬레스의 한 수영장에서 열었습니다. 필리핀은 4~5월이 한 해 중 가장 덥고, 특히 내륙 지역인 앙헬레스는 더 덥게 느껴지는데, 형편이 어려워 그동안 수영장 한 번 제대로 가보지 못했던 아이들이 시원하게 물놀이를 즐기며 그동안의 피로를 풀고, 맛있는 식사와 함께 연합은 더욱 강화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총 165명의 많은 인원이 참석했던 이번 행사는 코피노 아이들이 주축이 되어 태권도 및 스킷 드라마, 합창 등의 발표를 했는데, 함께한 많은 이들이 한없이 즐거워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2024 멤버스데이 보고 - 한국방문(2024.11.06~11.10)

낮선 발걸음, 그리고 따뜻한 환영!

2024년 11월 6일, 코피노 아동 10명 및 보호자 7명, 그리고 한국인 스태프 2명이 인천공항으로 아침 7시에 입국했습니다. 밤 비행으로 도착하자마자 허기질 이들을 위해, 공항 근처 청라에 위치한 인천평강교회(박희정 담임목사)에서 뜨거운 환영 및 따뜻한 아침 식사를 준비해주셨습니다. 저녁에는 분당다함교회(최정권 담임목사) 수요일예배에 참석했는데, 앙헬레스 센터를 담당하시는 조근묵 선교사님께서 코피노 사역 소개 및 설교를 전해주셨고, 예배를 마친 후에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꼭 끌어안아주시며 사랑의 온기를 전해주셨습니다. 금요일(11/8)에는 창덕궁 고궁투어 및 연세대 대학탐방을 하였고, 저녁에는 일산광림교회(박동찬 담임목사) 금요일예배에 함께 했습니다.



코피노팀 19명,
인천공항 도착
(2024.11.06.)



인천평강교회에서
환영식 및 식사 섬김
(2024.11.06.)



분당다함교회
수요일예배 참석
(2024.11.06.)



고궁투어 및
대학탐방
(2024.11.08.)



2024 멤버스데이 보고 - 한국방문(2024.11.06~11.10)

한국에서의 행복한 추억안고 출국



일산광림교회에서는 코피노팀의 왕복 항공료를 후원해주시기도 하셨는데, 준비해주신 식사와 함께 아름다운 금요일 밤을 보냈습니다. 드디어 대망의 토요일! 아이들이 한국 오면, 가장 가고 싶어 하던 놀이공원에 방문해 하루종일 깔깔 웃으며 신나게 보낸 후, 저녁에는 무한리필 고기집에서 풍성히 먹으며 한국에서의 마지막 밤을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떠나는 날, 빛가온교회(서길원 담임목사) 주일예배에 참석한 후, 대접해주신 식사를 하고 여의도 한강 공원에 들렸습니다. 필리핀에서도 앙헬레스는 내륙에 있어 바다도 큰 강도 없는데, 한강에서 유람선을 타고 유명한 한강라면도 먹은 아이들은 나중에 한국에 다시 오면, 매일 한강에 오고 싶다는 행복한 다짐을 남긴 후, 아쉬운 출국길에 올랐습니다.



일산광림교회
금요일예배참석
(2024.11.08.)



놀이공원 방문 후
마지막 밤
(2024.11.09.)



빛가온교회
주말예배 참석
(2024.11.10.)



한강 유람선
탑승 후 출국
(2024.11.10.)

지난 사역 보고와 후원자와의 만남의 시간인 ‘멤버스데이’는 이번이 6번째, 6년 만에 열린 행사라 더욱 특별했습니다. 비록 출생신고 등이 잘 갖춰져 있지 않은 코피노 아이들이 한국에 나오기까지 비자 발급에 있어 우여곡절의 과정이 있었지만, 결국 모든 것이 총만히 마무리되며 온전히 감사한 기억만 남게되었습니다. 저녁 6시부터 시작된 행사의 입구는 아이들의 성장 스토리 사진으로 꾸며져 많은 관심을 끌었고, 준비된 만찬 후에 1부가 시작되었습니다. 국제학생회 부이사장이신 이민우 목사님의 기도와 메신저 이사이자 열림교회 담임목사이신 이인선 목사님의 ‘거짓이 없는 사랑’이라는 제목의 설교 후, 서울우리교회 담임목사이신 노항모 목사님의 축도로 예배가 차분히 마무리되었습니다.



입구에 아이들
스토리 사진전시



참석자 만찬 및
기념품 준비



행사장을 가득
채운 초청객들
이민우 목사님
기도로 1부 시작



이인선 목사님의
예배 인도 후,
김춘호 이사장님
인사 및 감사장 전달

1부 마지막에는 김춘호 이사장님과 김명기 사무총장님이 나와 참석자들에게 감사 인사를 한 후, 감사장을 전달하는 것으로 1부가 마쳐졌고, 분위기를 전환해 개그우먼 김선정님이 워트 넘치는 사회로 2부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구현모팀(부석현, 이예준)의 따스한 감성의 노래에 이어 코피노 아이들이 등장해 준비한 공연을 펼쳤는데, 태권도 2단 실력의 두 태권 소녀, 은과 예렘의 절도있는 무예 후, 전체 아이들이 준비한 워십 댄스로 참석자들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그 후에는 펜플룻팀인 펜하임의 연주와 빅콰이어의 감동적인 합창이 이어지며 참석한 모든 이들의 화합을 이끌었습니다. 손에 손잡고 애국가를 함께 열창한 후, 마지막 기념촬영을 하는 것으로 모든 행사가 마무리되었습니다.



김명기 사무총장
감사 인사 후,
개그우먼 김선정
사회로 2부 시작



코피노 아이들
발표(태권도, 간증
합창, 워십)



구현모 팀,
펜하임,
빅콰이어 축하공연



모두가 하나되었고
행복했던,
행사 마무리와
기념촬영

2025 메신저 사역 - 성적 우수상을 받은 아이들(4월 학기 졸업) - 자랑스런 코피노 “여전히 우리는 꿈꾸고 있는 중입니다!” -



이조셉군, 고등학교 수석 졸업으로 대표 연설

메신저는 조셉이가 아홉 살 때 처음 만났습니다. 조셉이의 엄마는 콜센터에서 일하며 아들을 혼자 양육해왔습니다. 늘 성실한 조셉이는 학창시절 내내 상위권을 놓치지 않는 우등생으로 자라왔습니다. 성품도 훌륭하여 엄마에게는 효심이 깊은 아들, 코피노 센터에서는 듬직하고 친절 한 선배로, 모두가 잘 따르고 좋아하는 학생입니다. 조셉이는 코로나 팬데믹 때 중학생이었는데, 당시 학교도 가지 못하고 모든 것이 막히자, 집 앞에서 직접 물품들을 팔며, 생계비를 마련해가던 지혜롭고 기특한 아이이기도 합니다. 메신저의 장학생이자 자랑이기도 한 조셉이는 지난 4월,

고등학교 졸업식에서 학교수석으로 졸업생 대표 연설을 하였습니다. 코피노센터의 교사와 친구들이 모두 가서 함께 축하해 주었습니다. 요즘 조셉이는 지역 농업대학교의 컴퓨터 공학과에 입학할 앞두고 있는데, AI 전문가로 성장해 나중에는 대학 교수가 되기를 꿈꾸고 있습니다. 조셉이가 대입 후 더 큰 꿈을 펼쳐 후배들에게 좋은 롤모델이 되어주기를 기대합니다.



2024-2025학기 성적우수상을 받은 아이들

이밖에도 지난 학기 성적 우수상을 받은 자랑스런 아이들의 모습을 소개합니다.



아테나로즈(10세)



마테오리(5세)



유미(13세)



아이엘레(14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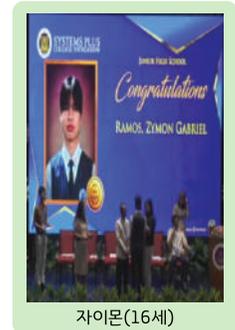
엔젤제네비브(12세)



우진(8세)



이니고(14세)



자이문(16세)



2024-2025 후원해주신 분들

Messenger
International

2024 멤버스데이 행사

이사	김춘호, 김정순, 송병석, 신상두, 이정준, 장대근, 홍정민, 유봉환, 김변호(영광교회 담임목사), 박동찬(일산광림교회 담임목사), 이인선(열림교회 담임목사)
개인	김기숙, 김민기, 김의환, 김종수, 박보미, 박유근, 유철현, 이경일, 이미준, 이선준, 정유식, 홍병철
일반	장중호, 이진옥, 문해숙, 채민석, 양시진, 김린다, 임지현, 갤러리아아트아트, 김민섭, 이주영, 김지영, 백병남, 신해경, 권금순, 전용하, 변동수, 박규호, 한승희, 김승일, 이현심, 윤혜라, 문원경, 윤세자, 김형섭, 박항준, 정유식, 임주영, 박태영, 신혜경, 이상현, 이은준, 김지영, 윤병섭 등
기업	(주)코마티코리아, (주)누리텍, (주)링크제일, 한국전자산업협회, 네오미션(이효승)
단체	강남기도모임(유승남, 신상두, 이해문, 최용민, 신승중, 최현수), 사검의 교회, (사)해피엘
교회	분당다함교회(최정권 목사), 빛가온교회(서길원 목사), 인천평강교회(박희정 목사)

2025 후원자

특별	김다빈, 윤상권, 도이슬레코리아, 제너셈(주)
일반	강길원, 강남기, 강민정, 강수진, 강영숙, 강윤수, 강진순, 고주석, 고현주, 고화림, 광원철, 광해미, 광호성, 국정민, 권금순, 권남구, 권동현, 권영미, 권용복, 권정자, 권혁범, 김경봉, 김경환, 김광복, 김근, 김기숙, 김대유, 김동현, 김명희, 김문옥, 김문혁, 김미정, 김민숙, 김민혜, 김병관, 김병선, 김병일, 김빈, 김선영, 김선정, 김선화, 김성철, 김세휘, 김수진, 김순기, 김승환, 김승희, 김신, 김아영, 김연대, 김영덕, 김영자, 김영진, 김용준, 김원명, 김유경, 김유진, 김윤례, 김은미, 김은식, 김은실, 김은정, 김은지, 김의진, 김인수, 김정숙, 김정훈, 김정훈, 김종수, 김주연, 김지애, 김지영, 김지호, 김태영, 김태윤, 김태훈, 김현숙, 김형기, 김혜나, 김혜영, 김홍석, 김화연, 김효정, 김희숙, 나성화, 노상균, 노용하, 노윤용, 노정화, 노혜정, 류은자, 마형렬, 명이숙, 모상오, 문성례, 문영민, 문해숙, 민신희, 박규수, 박규호, 박금자, 박남명, 박동찬, 박석청, 박선희, 박숙, 박요셉, 박우준, 박인순, 박정금, 박정재, 박준호, 박진, 박찬섭, 박천은, 박향이, 박현숙, 박현진, 방미옥, 배길자, 배성옥, 배유영, 배지현, 배혜림, 변동수, 서미혜, 서창영, 성복자, 성혜진, 소영섭, 손동희, 손양숙, 손지민, 송규순, 송근형, 송병석, 송연, 송인순, 송재호, 송현권, 신경순, 신길호, 신상두, 신승중, 신은순, 신일선, 신태성, 신혜경, 신혜원, 신혜정, 심유하, 안순희, 안재순, 안정림, 안정환, 안제연, 양명희, 양수현, 양시진, 양운용, 여성호, 오경환, 오혜진, 온기섭, 용은희, 우경숙, 우기연, 우철용, 유경희, 유미옥, 유병현, 유봉환, 유서진, 유성훈, 유수연, 유영종, 유재호, 유정숙, 유지혜, 윤성준, 윤승현, 윤여삼, 윤인선, 윤종숙, 윤중식, 윤창식, 이건주, 이경수, 이계원, 이기철, 이기형, 이덕순, 이동영, 이래정, 이명숙, 이미자, 이미준, 이민우, 이병희, 이보옥, 이상철, 이상현, 이상혁, 이서연, 이서영, 이선준, 이성숙, 이세호, 이수현, 이승규, 이승민, 이승환, 이승희, 이애경, 이애라, 이예숙, 이옥영, 이요한, 이윤식, 이윤정, 이윤희, 이은자, 이은정, 이은주, 이장열, 이재훈, 이정민, 이정분, 이정수, 이정원, 이주영, 이준영, 이진옥, 이창섭, 이태경, 이택구, 이하경, 이하정, 이혜순, 이현구, 이현우, 이현정, 이현주, 이형신, 이화순, 임기연, 임덕순, 임성옥, 임옥자, 임의순, 장중호, 전기숙, 전기자, 전민옥, 전소영, 전용하, 전은자, 전제상, 전진영, 전혜선, 정광열, 정대용, 정상현, 정성일, 정숙자, 정연희, 정영진, 정유종, 정윤석, 정재걸, 정재권, 정지상, 정지수, 정지원, 정현주, 정혜진, 정호석, 조가영, 조문기, 조선재, 조선현, 조연옥, 조영현, 조정환, 주미경, 지현숙, 지혜영, 진연숙, 차혜선, 채민석, 천지은, 최길용, 최남식, 최명숙, 최봉균, 최선웅, 최수미, 최윤화, 최은미, 최은영, 최준영, 최준호, 최진우, 한경애, 한계숙, 한규화, 한선주, 한성애, 한영숙, 한용숙, 한윤정, 함현숙, 허영순, 허장봉, 호필섭, 홍성관, 홍순화, 홍정민, 홍현영, 황성관, 황의화, 황인준, 황지영
단체	(주)다음정보기술, (주)선광티앤에스 가버나움선교회(김영일, 김창문, 이병운, 하경수), 프레이즈엘로힘, KIMLINDA, (주)비케이비전, 갤러리아아트아트, 대한예수교장로회대학교, 살린다주식회사, 서울우리침례교회, 세무법인보광, (주)샌드크래프크, (주)스프레틱스, 강릉중앙교회, (분당)다함교회, 문호교회, 수표교교회, (수지)이룸교회, 주다산교회, 제천제일교회



◆ 마음을 모아주세요

1. 메신저를 통해 한 영혼, 한 영혼이 단단히 잘 세워질수 있도록
2. 꿈을 이루며, 다시 다른 이들의 꿈이 되는 아이들이 늘어나도록
3. 1만원 후원에 동참하는 정기 후원자들이 늘어날 수 있도록



◆ 공지 안내

1. 내년 초에 발급되는 2025년도 기부금 영수증 발급을 희망하시는 분들 중, 개인정보(주소 및 연락처)가 변경된 분들이나 영수증 발급을 최초로 신청하지 않으셨던 분들은(주민등록번호 전체기입 필요) 연락부탁드립니다.
2. 필리핀 메신저센터 도서관에 비치할 영어책과 온라인 수업을 위한 노트북 등을 후원해주실 수 있는 분들은 사무실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후원계좌

1. 신한은행 100-025-948669 / 예금주: 사단법인 메신저인터내셔널
2. 외환은행 630-272206-458 / 예금주: (사단)메신저인터내셔널



우 04969 서울시 광진구 아차산로78길 44, 512호(광장동114 크레스코)
 T. 02-722-0645~7 F. 02-737-5997 www.messengerin.com
 (사)메신저인터내셔널 이사장 김춘호 사무총장 김명기

